

들어가면서.

- 요한복음 2-12 장은 소위 “표적”(sign)에 관한 이야기. 표적이 가리키는 바는? (말씀이 세상에 나타남=> 1:14, 51)
- 표적은 기적/능력/권능(miracles) 자체에 관심을 두기 보다는 사건을 통한 깨달음을 목표로 함(sign acts, revelatory events).
- 가나의 혼인잔치(2:1-12)와 성전 타파(2:13-22)는 서로 무슨 관련이 있나? 말씀이 육신(예수의 몸)으로 세상에 비로서 나타남.
 - (깨달은, 보는, 아는) 제자들에게는 영광으로(1:14=>2:11). 새로운, 변화된 삶.
 - 유대지도자, 예수의 대적자들에게는 위험인물로

A. 가나 혼인잔치

1. 예수의 첫번째 표적. 요한복음의 성격=> “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” (요 2:4; 마 1:24; 5:7)
 - 마가복음은 귀신축출을 시작으로 예수의 사역. 요한복음에는 없는 이야기
 - 똑같은 질문이 요한복음에서는 표적. 때(시간)은 예수가 영광을 받는 시간이며, 이는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가리킴(12:23-25).
2. 포도주는 메타포어=> 예수를 상징
 - 가장 좋은 포도주. 유대의 기존 풍습/체제로부터의 변화를 모색. 포도주는 예수가 세상에 가져오는 구원을 상징.
 - 섬기는 자(διδάκονος, deacon)=> 요 12:26 (요 2:5, 9). 연회장(chief steward)은 모르지만, 하인(섬기는 자)는 어디서 왔는지 알더라. 연회장은 유대지도자를 상징. 이들은 포도주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른다. 예수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른다.
 - 물과 포도주는 성만찬을 상징. 내 피를 마시지 않고(요 6:53-56; 마 26:28; 막 14:24; 눅 22:20)=>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보여준, 유대종교/사상/가치관의 변화를 통한 구원. 즉 예수의 종교/사상을 따라지 않고는(“마시지 않고는”) 진정한 구원은 없다. 단순한 결례예식이 죄씻음으로 발전.

B. 성전을 대체한 예수

1. 성전은 유대지배체제를 상징
 - 예수의 행적은 성전정화(“temple cleansing)을 넘어 성전타파를 암시. 점차 유대 지도자들과 분쟁이 심화. 결국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를 죽이고자 결의(11장). 12장 이후 예수는 더 이상 공생애(public ministry)를 멈추고 제자들과 지냄(13-17장).
 - 공관복음에서는 이 사건이 예수사역의 마지막 때—예루살렘 입성—일이지만, 요한복음에서는 이를 서두에 배치함으로써 요한복음의 신학적 입장(theological agenda)을 분명히 함. 예수의 사역(ministry)은 한 마디로 지배체제(domination system)와의 투쟁.
2. 공관복음보다 한층 심화된 분쟁
 - 예수의 행위=> 요한복음의 “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, 양과 소를 성전에서 내어 쫓는” 행위는 공관복음에는 없다(마 21:12-13; 막 11:15-17; 눅 19:45-46).
 - 예수의 말 => 공관복음은 “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,” “강도의 굴혈(사 56:7; 렘 7:11). 요한복음은 여기에 “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”(시 69:9) + “이 성전을 헐라.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.” (마가복음에서는 거짓 증언. Cf. 막 14:57-58)
 - 성전으로서의 예수=> 요 1:14; 2:19-22; 4:19-24

생각해 보기

1. 예수의 생애가 지배이데올로기/체제/가치관에 대한 도전이었다는 사실이 내게는 어떻게 다가오는가?
2. 내가 예수의 제자(Disciples of Christ Jesus)로서, 하는 일은? 할 수 있는 일은?